

이란 국정조정위원회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확정

□ 이란의 국정조정위원회(Expediency Council)는 2002. 5. 25자로 동위원회 앞으로 조정회부된 외국인투자법안에 대한 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개혁파가 지배하는 국회와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헌법수호위원회(Guardian Council)간의 대립으로 1년 이상 지연되어온 동법의 개정안을 확정함.

- 동 법안의 확정으로 외국인투자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게 되고 동시에 국유화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, 이번에 조정 통과된 법안이 당초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비하여 투자자 보호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수파의 부정적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.
- 특히 개정법안의 문제점으로는 산업부분별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를 25%로 제한하고 산업부분내 특정분야의 투자를 35%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됨.
- 이러한 제한은 그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관료주의를 강화하게 될 소지가 적지 않아 개정법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될 여지가 큰 것으로 지적됨.
- 개정안의 전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법안의 모호한 부분때문에 시행령 등 후속 법체계의 내용이 주목됨.

□ 이란, Eurobond 발행 간사은행 선정

- BNP Paribas와 Commerzbank가 이란이 추진중인 Eurobond발급(300-500 Million Euros, 만기 3-5년)을 위한 공동 주관사 은행으로 최근 선정된 것으로 양은행에 의하여 확인됨.

- 그러나 회교혁명 후 최초의 이란의 국채발행가격은 현재 이란의 Political risk를 감안할 때 수익률이 German Bunds 기준 700 basis이하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전망되고 있음.
- 이러한 전망은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제재, 부시대통령의 「악의 축」 발언, 지난 주 미국무성이 발표한 7개 테러지원국(Iran, Cuba, Libya, Iraq, North Korea, Sudan, Syria)명단에 8년간 계속 포함되었고 가장 활동이 활발한 국가로 지정된 데 따른 정치적 이유로 해석할 수 있음.
- 이란의 신용등급(Fitch: B+, Moody's: B2)과 유사한 신용등급(Fitch: B+, Mood's: B1)으로 평가되고 있는 터키의 경우 최근 5월초 5년 만기 150 Million Euros를 Bunds기준 522 basis로 발행한 바 있음.
-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란의 외채상황 및 외채구조 등 경제적 측면만 본다면 이란의 경제상황은 투자적격 등급(Fitch: BBB, 이란보다 6단계 상위등급)으로 평가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보다 양호하다는 입장임.
 - 2001년도 debt/export ratio
 - 이란: 28%
 - 말레이시아: 43%
 - 2001년도 Debt/ GDP
 - 이란: 7%
 - 말레이시아: 51%
- 한편, 이란의 Bond 발급은 고유가 현상의 지속으로 자금 도입의 필요성이 별로 크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란이 장기간의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금융시장에 다시 데뷔한다는 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.

책임연구원 강준수 (☎ 3779-6645)
 E-mail : jkang@koreaexim.go.kr

